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

-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

노윤선**
ysroh1008@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반복되는 증오의 피라미드 |
| 2. 관동대지진 이후 | 5. 나오며 |
| 3. 동일본대지진 이후 | |

主題語: 관동대지진(The Great Kanto Earthquake), 동일본대지진(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증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 혐한(Anti-Korea(n) Sentiment), 혐오 발언(Hate Speech), 재일한국인(Koreans residents in Japan)

1. 들어가며

혐한은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해 혐오 발언(Hate Speech)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언론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지구촌 세계화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혐오 발언은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길 차별적 발언을 의미하며¹⁾,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연설에서부터 문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가리키는 범위가 다양하다.

헤이트 스피치라는 용어는 이렇듯 현대 시대에 등장하였지만, 역사 속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일환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었다. 유대인 학살자인

* 이 연구 성과는 2018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2030년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CORE사업단 연구보조원

1) Jörg Meibauer(2013), “Hassrede-Von der Sprache zur Politik”, 『Hassrede/Hate Speech-Interdisziplinäre Beiträge zu einer aktuellen Diskussion,』Gießener Elektronische Bibliothek, p.1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대인에 대한 굳어진 선입견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형식이든, 특히 문화생활의 형식에서 불결하거나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거기에 유대인이 관련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는 그들을 격하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인 혐한과 관련하여 조관자²⁾는 한·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혐한이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현상에 대해 넷 우익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다와라기 하루미(俵木はるみ)³⁾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속에서의 혐한 언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웅기(2014)⁴⁾는 재특회(在特會)의 성장 과정과 성격을 정리하고, 혐한의 폭력성에 노출되고 있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하라지리 히데키(原尻英樹)⁵⁾는 『혐한류(嫌韓流)』 만화를 중심으로 조선 멸시관에 대해 논하였고, 이타카기 류우타(板垣竜太)⁶⁾ 또한 『혐한류』 만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혐한류 혹은 반한론적 사고가 전후 일본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국내 외학술논문에서는 혐한에 있어 인터넷 우익, 미디어 내셔널리즘, 출판물, 재특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이에 일본에서의 혐한과 혐오 발언에 대한 시선을 지진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혐한이나 혐오 발언이라는 신조어는 현대에 등장하였지만, 그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관동대지진과 혐한 시위가 증가하기 시작한 동일본대지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관자(2016)「일본인의 혐한의식·‘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아세아연구』제16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250-281

3) 다와라기 하루미(2015)「일본 신문에 나타난 「혐한」 언설의 의미 고찰-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113-140

4) 김웅기(2014)「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일본학보』제98집, 한국일본학회, pp.417-432

5) 原尻英樹(2006)「[世界のコリアン]「嫌韓流」にみる日本定住コリアンのイメージ: 朝鮮蔑視観と自己中心性の病」『アジア遊學』Vol.92, 勉誠出版, pp.10-19

6) 板垣竜太(2007)「<嫌韓流>の解剖学現代日本における人種主義-国民主義の構造-」『韓流のうたち外: 韓国文化力と東アジアの融合反応』御茶の水書房, pp.99-113

2. 관동대지진 이후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도쿄(東京), 요코하마(横浜)를 시작으로 주변 각지를 덮친 대지진이다. 피해는 1부(府) 8현(縣)에 이르며 파괴되고 불탄 주택이 68만 호, 사망자 9만 천여 명, 부상자 10만 4천여 명, 행방불명자만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큰 재해였다.⁷⁾ 도쿄는 괴멸 상태로 정치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마비되었다. 도쿄에 화재가 발생한 곳만 해도 187곳에 달했으며, “불길이 가장 빠를 때는 시간당 800m/s 이상의 속도로 거리를 삼켜나갔다.”⁸⁾고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축적해 온 근대문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관동대지진 앞에서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하였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대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문제는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폭탄을 소지하고, 방화하고, 우물에 독극물을 집어 던지고 있다”라는 등과 같은 이상한 소문들이 떠돈 것이다. 당시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는 내란을 막기 위해 ‘지진을 틈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닌다’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불령선인(不逞鮮人)’⁹⁾으로 불린 조선인들을 학살당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조선인을 적으로 인식한 내용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이 관동대지진 직후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연재 발표한 지진소설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인을 ‘적(敵)’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1단계인 선입견에 의한 행위 중 적대감 표명에 해당한다. 적이라면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공동으로 무찔러야 할 존재 그것을 조선인으로 간주하고 있던 것이다.

적이 온다, 적이 온다. 옛날이야기가 아닌 한 믿을 수 없는 2천 명이나 되는 적이 습격해 온다는 소문은 그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敵が来る、敵が来る、お伽話でもない限りは信じられないやうな、二千人もの敵が襲つて来る

7) 三田英彬(2000)『<評傳>竹久夢二時代に逆らった詩人画家』藝術新聞社、p.234

8)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p.30

9)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당시의 일본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기 4년 전에 일어난 조선 독립을 위한 3·1 운동도 ‘불량선인의 폭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加藤直樹(2014)『九月、東京の路上で: 1923年關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p.202)

といふ風聞はその翌日になつても続いた。¹⁰⁾

불안과 공포에 떨며 이성이 마비되어 있던 일본인들은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었으며¹¹⁾, 이것은 2단계인 편견에 의한 행위와 3단계인 차별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월 2일 오후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¹²⁾ 군대·경찰의 출동과 함께 각지에서 자경단(自警團) 등이 조직되어 죽창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후 조선인을 찾아서 잔인하게 죽였다. 4단계인 폭력 행위와 5단계인 제노사이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자경단은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일정한 자위력을 갖춘 집단을 표방했었던 단체였으며, 실제로는 계엄사령부가 유도한 단체로서 일본도, 죽창,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¹³⁾

물론 이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실로 대단해서 이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조선인이 무려 6천 명 이상이나 되었다. 죽창, 칼, 일본도, 톱과 같은 잔인한 무기들로 조선인들을 학살하였으며, 개인이 아닌 단체행동이었기에 죄책감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천재(天災)에 인재(人災)가 더해져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 1872-1943)는 「소화기(ファイアガン)」(1923년 11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서 일본인이 일으킨 잔학한 행동이었던 조선인 대학살이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형사들은 그때 일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조선인의 행동이나 착각으로 일어난 잔혹함에 대해 각자가 들은 바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刑事たちは、その時ひどく一般から恐怖されてゐる鮮人の行動や、錯誤から來た殘虐などについて各自の見聴きしたことを話し合つてゐた。¹⁴⁾

10) 島崎藤村(1950)「子に送る手紙」『島崎藤村全集 第11卷』新潮社、p.221

11) 폐허가 된 마을 사람들은 우유나 신문 배달부가 빠른 배달을 위해 표시해둔 ‘A’, ‘↑’ 등의 기호를 마치 습격할 대상이나 방화 계획을 알리기 위한 암호라고 멋대로 해석하였다. ‘조선인 폭동설’은 어느새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 되었다. (松田美佐(2014)『うわさとは何か: ネットで変容する‘最も古いメディア’』中公新書, pp.10-11)

12) 공식적으로는 2일로 되어 있지만, 강덕상은 9월 1일 저녁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3) 김지연(2016)「‘도쿄재난화신’ 속의 일본, 일본인 그리고 조선」『일본학보』제108집, 한국일본학회, pp.99-119

14) 徳田秋声(1973)「ファイアガン」『日本近代文学大系21卷』徳田秋声集』角川書店、p.370

그러나 조선인이 일으킨 행동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쿠다 슈세이의 작품 속에서도 2단계의 편견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 유언비어의 원인을 수색해 보아도 “아무런 근거도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¹⁵⁾고 밝히고 있다.

관동대지진에 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온 강덕상(姜德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관동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는 일본 정부가 흘린 선동적 허위정보였으며, 정부는 피해 대책에 대한 미진으로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에 대한 불만이 곧 민중 폭동으로 이어질 것에 지레 겁을 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돌과구를 찾기 위해 무고한 조선인을 이용한 것이었다¹⁶⁾고 밝힌다.

강덕상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던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允)는 유언비어의 발생이 산발적이며 발생원이 여러이어서 그 근원을 한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9월 1일의 유언비어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조선인 멸시관, 일본인의 타자 차별 사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¹⁷⁾

중요한 것은 관현과 일반 시민들, 즉 일본인들 내면에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조선인 학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행위들을 묵인하고 계속해서 내버려 둘 경우, 3·4단계인 차별과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1872-1930)의 『동경진재기(東京震災記)』(1924년 4월 博文館)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인의 인상을 말하면서 조선인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거부가 대화체로 나타나 있다.

“그게 자네는 좀 닮았다니까.” “내가 조선인하고?” “머리를 좀 기른 데가 닮았어.” “정말, 참을 수 없군” “너무 얼굴이 가름하고 창백한 것도 닮았다니까”

『それに、いくら、君は似ているところがあるからね?』『私が、鮮人に?』『髪をいくら長くしているところなどが、似ているよ』『いやだなア、やり切れない?』『いやに顔が細長く、蒼

15) 頻繁に警察へ舞ひこんで来る報告も報告も、その元を搜索してみると、何の根據も事實もないことが確かめらるばかりであつた。(각주14), pp.370-371)

16) 대표적으로 강덕상(姜德相)과 금병동(琴秉洞)이 관현에 의한 의도적인 유언비어 날조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允)가 의문을 제기하고 자연적인 발생을 주장하였다.(이승희(2012) 「관동대지진과 일본군 헌병대: 제일조선인학살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91집, 한국일본학회, p.365)

17) 강덕상·야마다 쇼지·장세윤·서종진 외(2013)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pp.19-20

白いところなんかも似ているよ』¹⁸⁾

조선인으로 오해받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 당시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인상을 말하며 주고받는 장면인데, 조선인으로 오해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사실 오해받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음)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언론들은 관동대지진 당시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였고, 이것은 조선인 학살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은 9월 1일 자로 일본 최초로 관동대지진에 대한 뉴스를 호외(號外)로 발간하였고, 9월 3일에는 조선인에 대해 불령선인이라는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1면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인 200명이 경찰과 충돌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20명을 검거했으나 모두 달아났다. 불령선인들이 절도·강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사실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내용이었으나, 광분한 일본인들은 9월 1일 저녁부터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¹⁹⁾

눈여겨볼 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 학살의 선두에 서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주동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상대 즉 조선인에 대한 보복심리 등에 원인이 있었겠지만, 평소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 표명과 의도적 차별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즉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하여 4단계인 폭력 행위에서 5단계인 제노사이드(민족 말살)로 이어진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3.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津波)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이라고 불리는 이 재해는 후쿠시마(福島)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이라는 인재까지 일으켰다. 천재와 인재로 인한 일본의 위기상황과 대혼란은 지금으로부터의 93년 전 관동대지진을 떠올리게 한다.

관동대지진 당시와 유사하게 2단계인 편견에 의한 행위 중 의도적 차별표현에 해당하는 허위정보나 유언비어도 끊이지 않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인터넷상에 나타난 피해지와 관련

18) 田山花袋(1991)『東京震災記』社会思想社、p.250

19) 각주17)、pp.198-199

된 헛소문으로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犯罪が起きている)”, “피해지에서 강도 다발(被災地で強盗多発)”, “칼을 들고 있는 외국인절도단이 출현하고 있다(ナイフを持った外国人窃盗グループが出現している)”, “시체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외국인이 있다(遺体から金品を盗む外国人がいる)”라는 등의 내용이 나왔으나, 소문의 발단은 파악하기가 힘들다.

소문이나 유언비어와는 반대로, 실제 피해지인 미야기현(宮城県) 내의 강도 건수는 3월 11일 지진 발생 후 1개월 동안 1398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에 비교해 36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²⁰⁾ 이렇듯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멸시의 감정 즉 선입견 혹은 편견이 더해져서 더욱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전에는 피해지를 중심으로 헛소문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던 것에 반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더욱 쉽게 확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더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 있다.²¹⁾ 이에 대해 히로이 오사무(廣井脩) 교수(동경대학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学環))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다.

“본디 재해 시에는 헛소문이나 유언비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다. TV는 고사하고, 전화도 없는 관동대지진 때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헛소문이 발생한 다음 날 퍼지고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즉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다.”²²⁾

나아가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나타난 일본인의 행동 양상 또한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의 단계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3단계인 차별행위 중 사회 배제에 해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한국인을 배제하는 단계로 변화하였는데, 동일본대지진 이후 혐한 시위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10월 30일에 공개된 외교부가 처음으로 주일 공관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 30건에 불과하던 혐한 시위 건수는 2010년에 31건, 2011년에는 82건으로 늘어나더니 2012년에는 301건을 기록하였다. 3년 사이에 10배가 급증한 것이다. 재일한국인은 일주일에 5번 이상 꼴로 혐오 발언에 노출된 셈이다. 혐오 발언은 “조센징(朝鮮人)²³⁾을 죽이자, 학살하자”라는 폭력적인 구호로 더해졌다.

20) 「グローブ185号<Re:search>噂の深層 朝日新聞GLOBE編集部・小山謙太郎」『朝日新聞』(2016.9.4)

21) 동일본대지진 당시 유행했던 트위터 상의 허위정보나 유언비어를 정리하여 검증한 것으로 「東日本大震災に關するデマまとめ(@jishin_dema) 基本情報集」(<http://togetter.com/li/180783>, 2011.8.29) 등이 있다.

22) 「首都圏大地震の現実味「安政の大地震」から150年。不気味な類似性」『朝日新聞』(2005.6.24)

23) ‘조센징(朝鮮人)’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이다. 일본에서 조센징이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한국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8월 26일에는 일본의 게임회사 세가

또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결정적인 발단이 된 유언비어들이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유언비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2단계인 편견에 의한 행위 중 의도적 차별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예로 험한 시위의 현수막 가운데에서 관동대지진 때 사용된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험한과 혐오 발언은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며,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행위를 바탕으로 3단계인 차별행위를 거쳐 4단계인 폭력 행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 나오키(加藤直樹)는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九月、東京の路上で: 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2014, ころから)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열등하고 위험한 민족’이라는 기호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는 관동대지진 당시 도쿄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와 같은 대량학살의 도시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도 험한 시위에서 “한국인 쫓아내라”,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등의 발언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이 외치는 함성이 90년 전 도쿄의 거리에서 울려 퍼졌던 ‘죽여라’라는 외침과 공명하고 있다.”
 “극우 정치가의 선동이 계속되는 21세기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대학살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기억이 은폐되고 억압될 때 반성은 사라지고 잘못은 반복된다.”
 “도쿄는 아직도 90년 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살육에 대한 기억은 억압되고, ‘위험한 조선인’이라는 이미지만 남아 있다.”

이것은 일본의 험한과 혐오 발언에서 나타난 재일한국인에 대한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내버려 둔다면 3·4단계인 차별과 폭력 행위는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고, 관동대지진 당시 5단계인 조선인 학살과 같이 유사한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EGA)의 ‘용과 같이 극 2’ 발표회 현장에서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오늘 무대에 올라온 몇 명은 ‘조센징’ 이니까. 조선에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길 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세가(SEGA) 게임 속 용과 같이 성우 한국인 조센징 비하 망언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fSvePTud7E&feature=youtu.be>)

4. 반복되는 증오의 피라미드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살펴본 선입견과 편견이 거치는 단계들에 대해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²⁴⁾의 ‘증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²⁵⁾인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를 선입견에 의한 행위(acts of prejudice), 2단계는 편견에 의한 행위(acts of bias), 3단계는 차별 행위(acts of discrimination), 4단계는 폭력 행위(acts of violence), 마지막인 5단계는 민족 말살(genocide)로 이루어진다.

1단계인 선입견에 의한 행위로는 농담, 적대감 표명, 비형사적 행위, 배려 없는 발언, 배제적 언어가 해당하며, 2단계인 편견에 의한 행위로는 비인간화, 비웃음, 사회적 회피, 비방, 중상, 의도적 차별표현이 해당한다. 3단계인 차별행위로는 취업·주거·교육에 대한 차별, 사회 배제, 괴롭힘이 해당하고, 4단계인 폭력 행위에는 모독죄, 협박, 기물파손, 폭행, 방화, 테러, 강간, 살인이 해당한다. 마지막 5단계인 제노사이드는 의도적·제도적 민족 말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혐한과 혐오 발언에 관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의 혐한 및 혐오 발언이 행동을 통해 즉 3단계인 차별행위를 통해 표출된 것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15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⁶⁾ 이것은 37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꼴로 혐오 발언에 시달려온 셈인 것이다. 그 시위 건수나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등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혐오 발언은 상당 건이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조사는 혐오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첫 실태 파악으로 혐한과 혐오 발언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유효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15년 초에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상한 뜬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일본 우익인사들의 SNS를 통해 ‘7·9 재일한국인 추방일’이라는 글이 퍼진 것이다.

“7월 9일부터 주변에 있는 재일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해라.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쫓겨나게 된다.”

“7월 9일까지만 (재일한국인의 존재를) 참아라.”

24)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은 스탠퍼드대학교 범죄집행학(criminal justice) 교수이며, 증오범죄 연구자이다.

25) Brian Levin(2009) “The Long Arc of Justice: Race,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Hate Crime Law”, 『HATE CRIMES』Volume 1, Greenwood Publishing Group, pp.5-6

26) 파악된 시위는 40% 이상이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시위 빈도를 살펴보면 2012년 4월~12월에는 237건, 2013년에는 347건, 2014년에는 378건, 2015년 1월~9월에는 190건이었다. (「ヘイトスピーチ抑止へ法案」『朝日新聞』(2016.4.6))

실제로 이날부터 이웃에 재일한국인이 살고 있으니 추방해달라는 이메일이 폭주했다고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하는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하니, 여전히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을 거쳐 3단계인 차별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1월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의 혐한과 혐오 발언에 대해, “혐오 발언 문제는 일본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심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혐한과 혐오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최초로 2016년 3월 16일에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지역법무국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참의원(参議院)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혐한과 혐오 발언의 실태를 증언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과감한 용기가 요구되었던 것들이었다. 혐한과 혐오 발언의 피해자 중 하나인 재일한국인은 “아이들과 부모들 앞에서 ‘죽어라’, ‘죽여라’라고 하는데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무서워요. 더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증언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보다 거리에서 보통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외쳐대는 혐한과 혐오 발언이 더욱 강한 신변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거리에서 극우 정치인이 혐한 발언을 하였을 때 한 시민이 항의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항의하던 시민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4단계인 폭력 행위 중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모습을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가해자들을 즉각 체포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내에서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양상이 3·4단계인 차별과 폭력 행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동대지진 당시 5단계에 해당하는 조선인 학살과 같은 악몽을 재일한국인으로서 떠올리기 충분할 것이다.

2016년 5월 24일에는 일본 중의원이 일명 ‘혐오 발언 방지 법안’인 「일본 이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안(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을 중의원 본회의에 통과시켰으며, 6월 3일자로 공포가 되었다.²⁷⁾ 그러나 법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며, 국가와

27) 2015년 5월, 일본 야당(민주당, 사민당, 무소속) 측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人種等を理由とする差別の撤廃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을 참의원에 제출하였을 때, 여당(자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나타냈으나, 이듬해 4월에 여당 측이 대안으로 「일본 이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안(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의안 제출자: 愛知治郎 외 두 명)을 제출하였고, 2016년 5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측의 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衆議院議員 ホームページ: <http://www.shugiin.go.jp/>)

지자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존이 걸려있는 재일한국인에게에는 유명무실한 법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6년 10월에는 오사카에 있는 초밥집에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고추냉이를 듬뿍 바른 초밥을 주면서,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 눈물을 흘리는 손님을 보며 비웃은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같은 달에 난바(難波)발 간사이(関西)공항행 급행 전철이 텐카차야(天下茶屋)역을 출발한 직후의 차내에서 40대 차장이 일본어로 “오늘은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 매우 혼잡합니다. 일본인 손님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차내 안내방송을 하였다. 한 버스회사는 ‘김충(キム・チョン·조센진처럼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인쇄한 버스표를 팔기도 하였다. 길거리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안전 정보] 우리 국민 안전 유의 당부”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리기가까지 하였다. 결국, 증오의 피라미드는 일본 내에서 혐한과 혐오 발언이라는 용어로 탈바꿈하여 현재 3·4단계에 이르렀으며, 보통사람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5. 나가며

혐한과 혐오 발언 용어는 현대 시대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증오의 피라미드인 1·2단계에 해당하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 지진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관동대지진 당시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을 바탕으로 결국 5단계인 조선인 학살까지 참혹하게 일어났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2단계에 해당하는 유사한 유언비어와 함께 여전히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3·4단계에 해당하는 차별과 폭행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현상은 증오의 피라미드에 의하면,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편견으로 고착되고, 고착된 편견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자행되면서 폭력 행위로 발전되어진 단계에 있는 것이다. 단계적인 흐름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혐한과 혐오 발언은 그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가 약자이거나 하면 결국 폭력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가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다. 현재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한과 혐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악성루머와 유사성을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가 현재 식민지였

거나 전쟁 중이라면 이러한 일본 내에서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쉽게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협한과 혐오 발언은 신조어이지만, 증오의 피라미드를 통해 본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흐름 양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증오의 피라미드는 한순간의 공격이 아닌 현재 재일한국인 6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차별의 공포와 폭력의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여 미래 차세대까지 평생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협한과 혐오 발언은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현재 모든 국민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사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대인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혐오 발언은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독일의 혐오 발언 규제 조항은 극우 정치가의 발언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협한과 혐오 발언 또한 엄격한 법률 조항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근대사에 생략되어있는 내용이 교육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타자와의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객관적인 시각의 태도가 중요하다.

【參考文獻】

- 강덕상·야마다 쇼지·장세윤·서종진 외(2013)『[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동북아역사재단, pp.19-20, pp.198-199
- 야마다 쇼지(2008)『[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논형, p.30
- 김웅기(2014)「협한(嫌韓)과 재일코리안-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일본학보』제 98집, 한국일본학회, pp.417-432
- 김지연(2016)「『도쿄재난화신』 속의 일본, 일본인 그리고 조선」『일본학보』제108집, 한국일본학회, pp.99-119
- 다와라기 하루미(2015)「일본 신문에 나타난 「협한」 언설의 의미 고찰-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113-140
- 이승희(2012)「관동대지진과 일본군헌병대: 재일조선인학살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일본학보』제91집, 한국일본학회, p.365
- 조관자(2016)「일본인의 협한의식·‘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협한」『아세아연구』제16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250-281
- 세가(SEGA) 게임 용과 같이 성우 한국인 조센징 비하 망언 유튜브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fSvePTud7E&feature=youtu.be>
- 加藤直樹(2014)『九月、東京の路上で: 1923年関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 p.202
- 松田美佐(2014)『うわさとは何か: ネットで変容する ‘最も古いメディア’』中公新書, pp.10-11
- 三田英彬(2000)『<評傳>竹久夢二 -時代に逆らった詩人画家』芸術新聞社, p.234
- 田山花袋(1991)『東京震災記』社会思想社, p.250
- 「首都圏大地震の現実味 ‘安政の大地震’から150年。不気味な類似性」『朝日新聞』(2005.6.24)

「ヘイトスピーチ抑止へ法案」『朝日新聞』(2016.4.6)

「グローブ185号<Re:search>噂の深層 朝日新聞GLOBE編集部・小山謙太郎」『朝日新聞』(2016.9.4)

板垣竜太(2007)「<嫌韓流>の解剖学 現代日本における人種主義－国民主義の構造－」『「韓流」のうち外: 韓国文化力と東アジアの融合反応』, 御茶の水書房, pp.99-113

島崎藤村(1950)「子に送る手紙」『島崎藤村全集 第11巻』, 新潮社, p.221

徳田秋声(1973)「ファイアガン」『[日本近代文学大系21巻] 徳田秋声集』角川書店, pp.370-371

原尻英樹(2006)「[世界のコリアン]「嫌韓流」にみる日本定住コリアンのイメージ: 朝鮮蔑視観と自己中心性の病」『アジア遊學』Vol.92、勉誠出版, pp.10-19

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デマまとめ(@jishin_dema)基本情報集: <http://togetter.com/li/180783>

衆議院議員 ホームページ: <http://www.shugiin.go.jp/>

Jörg Meibauer(2013) “Hassrede-Von der Sprache zur Politik”, Hassrede/Hate Speech-Interdisziplinäre Beiträge zu einer aktuellen Diskussion, Gießener Elektronische Bibliothek, p.1

Brian Levin(2009) “The Long Arc of Justice: Race,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Hate Crime Law”, 『HATE CRIMES』Volume 1, Greenwood Publishing Group, pp.5-6

논문투고일 : 2018년 03월 22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05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要旨〉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

-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

노윤선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혐한 시위 증가 등과 견주어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의 ‘증오의 피라미드’ 5단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일한국인 멸시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관동대지진 당시 중요한 것은 관천과 일반 시민들, 즉 일본인들 내면에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조선인 학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 표명과 의도적 차별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즉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하여 4단계인 폭력 행위에서 5단계인 민족 말살로 이어진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혐한 시위의 현수막 가운데에서 관동대지진 때 사용된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혐한과 혐오 발언은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며,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행위를 바탕으로 3·4단계인 차별행위를 거쳐 4단계인 폭력 행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혐한과 혐오 발언에서 나타난 재일한국인에 대한 1·2단계인 선입견과 편견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내버려 둔다면 3·4단계인 차별과 폭력 행위는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고, 관동대지진 당시 5단계인 조선인 학살과 같이 유사한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 Study on the Hate Speech and the Anti-Korea(n) Sentiment through the Japan's Earthquake

- Focusing on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Roh, Yoon-Seon

In this paper, I applied the Hate Speech and the Anti-Korea(n) Sentiment on the rise to the ‘Pyramid of Hate’ of Brian Levin, comparing with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anti-Korean demonstrations increase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important thing at the tim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was that there were clear prejudices and contempt for the Koreans within the government and ordinary citizens, that is, the Japanese people, which led to the genocide of the Koreans residents in Japan. It can be seen that it started from the expression of hostility toward the Joseon people and intentional discrimination, that is, through the prejudice and bias of the 1st and 2nd stage, the stage from the violence of the 4th stage to the genocide of the 5th stage.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t is still used in the banners of the demonstrations that were used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 word “Futei Senjin”, which shows that prejudice and bias against the Koreans residents in Japan remained after many years have. Therefore, the Anti-Korea(n) Sentiment and Hate Speech are not unexpectedly sudden, and they are repeatedly shown as the 4th stage of acts of violence through acts of discrimination of the 3rd stage based on acts of prejudice and bias which are the 1st and 2nd stage.

This is, if we continue to tolerate prejudice and bias, which are the 1st and 2nd stages of the Anti-Korea(n) Sentiment and Hate Speech in Japan, the 3rd and 4th stage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develop as in the past. Similar stages such as the 5th stage of the genocide of the Joseon people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suggest that it may happen again at any time.